

### 여제의 통일축방을 들어주시려고 (10)

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주체적역량의 하나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국가정사로 다방면 속에서도 소속과 거주지, 정견과 신앙이 각이한 수많은 해외동포들을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인생의 참된 길을 찾은 해외동포들 중에는 미국에 있던 조국통일추진회 회장이며 《한국인교회연합회》 고문인 김성락목사도 있었다.

그는 고향땅도 밟아보고 북의 통일립장을 한번 들어보자는 생각에서 공화국방문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공화국에 와서도 그는 통일문제에서 북의 방안에 동조하거나 말려들지 않고 모든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결론을 내린다는 도고한 자세를 취하였다.

한생을 거니 반공, 반북일변도의 사실행적속에 살아온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그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우리 겨레가 가야 할 진정한 통일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주제70(1981)년 7월 어느날 수령막사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애국지사로 내세워주시며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통일일은 반드시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실현해야 하며 그러자면 온 겨레가 자주적인 사상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일깨워주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선생이 미국에 돌아가면 미국사람들과 재미교포들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공화국의 립장과 방안을 잘 해설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아직 반공의 울타리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한 그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김성락목사는 시종 애국애족의 일념에 넘친 교시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말씀을 우러르며 수령님이사야말로 겨레의 통일년월을 함중에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만고의 위인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위인상에 감복하여 통일애국성업에 뛰어들 동료동포들아는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선생도 있다. 다 아느냐와 같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내외여론의 초점은 재미교포인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선생과 그 일행의 공화국방문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문선명선생으로 말하면 《승공통일》의 구호를 들고 반공의 앞장에 서있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그가 공화국을 방문할수 있는것은 바로 온 겨레를 함중에

## 해외동포들을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어

안아 통일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한없이 넓은 도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제80(1991)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방문한 그를 만나주시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시었다.

담화석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에게 우리 두사람이 단결하면 그 힘이 한사람의 힘보다 더 클 것이며 이렇게 전체 조선민족이 단결하면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과거지사를 묻지 말고 서로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하며 힘있는 사람

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부강조국건설이라는 민족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문선명선생이 제기한 문제들에도 명쾌한 해답을 주시며 앞으로 그 가 돌아가서도 공화국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잘 해설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뜨거운 믿음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그는 조국통일의 길에 여생을 바칠 결심을 피력하시었다.

어찌 이틀만이라 독립국가협동체 조선통일추진위원회(이하) 강일위원장, 해외동포작곡가 윤이상선



윤이상선



김성락목사



최덕신선생

김순철

최근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적의사가 없다》이니 뭐니 하면서 그 무슨 《전체조진없는 대화》와 《외교적관여》에 대해 떠들고있다. 망둥이가 튀니 꼴투기듯 떠드는 식으로 윤석열역적패들도 덩달아 《전체조진없는 남북대화》와 《대북 문제의 외교적해결》을 운운하고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기만적인 꾀비라 하였다.

우선 《북에 대한 적대적의사가 없다》는 미국의 주장부터가 그러하다.

미국의 말이 사실이 라면 공화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결할 의사부터 버려야 할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행동은 어떠한가.

공화국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를 고사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미국이 그 무슨 《북핵 및 미사일위협》을 떠들며 북침을 노린 남조선, 일본과의 군사동맹강화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전략사신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들이밀면서 각종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공화국을 겨냥하여 판도에 《B-52》전략폭격을 전진배치한데 이어 남조선에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끌어들었으며 남조선 감침 미군의 전격증강을 위해 미국본토에 있는 《스트라이커》러던전투단을 순환 배치하려 하고있다.

더욱 엄중한것은 미국이 공화국의 지도부를 노린 《참수작전》수행을 위한 특수훈련까지 공개적으로 벌리고있는 것이다.

이 모든 행위들이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적대행위이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발로라하는것은 더ろん한 여지도 없다.

이렇게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공공연히 일삼으면서도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의사가 없

다》고 떠벌이는 미국의 행태야말로 얼마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것가리인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윤석열역적패당을 반공화국대결로 적극 부추기고있는 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윤석열역적패당이 권력의 자리에서 들어가기 바쁘게 《한》미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재개와 《한미확장적대결협약》재가동 등을 획의하였다.

미국의 부추김길에 윤석열역적패당은 《북주적론》을 내리고 공화국에 대한 《신제타격》과 《원점타격》에 대해 떠들며 북침전쟁책동에 뛰어들어 달리고 있다.

제반 사실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의사가 없다》고 하는 미국과 《전체조진없는 남북대화》를 운운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의 행태가 저들의 침략적이고 대결적인 정체를 가리키기 위한 기만적인 행위이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윤석열패당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의사가 없다》이니, 《대화》니 하는 기만적인 언동으로 평화와 안정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뉘새를 괴워 내외여론의 환심을 사는 한편 공화국이 자위적 전쟁역적력을 강화하는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세상에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하는 것이다.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 전쟁경계로 몰아가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과 윤석열패역적패당이다.

승냥이가 양의 울음소리를 낸다고 양으로 들을수 없듯이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아무리 꼴투린 소리를 늘어놓아도 침략적이고 대결적인 본색을 절대로 가릴수 없다.

고영수

### 기만적인 《대화》타령이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 민족적자존심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정신적원동력

오늘 우리 겨레는 내외반동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이겨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는 것이다.

민족적자존심은 자기 민족이 남남 못지 않다는 자부심이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려는 마음이며 민족의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민족의 존엄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빛내이기 위해 한복숨마쳐 나서는 사

람이 참된 애국자이다.

우리 민족은 남달리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며 우리 민족이 창조해온 긍지높은 력사는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반만년을 헤아리는 우리 민족의 력사에는 위례철략자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고 조선민족의 기상을 떨친 수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있다.

천년강국으로 이름떨친 지금의 력사가 그러했고 지금도 세상사람들속에서 널리 전해져오는 청성대와 훈민정음, 고려종주와 고려자기, 국수축활자, 세계최초의 철갑선과 같이 우리 겨레가 창조한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그

러하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이 나라와 민족의 흥성번영을 담보하는 정신적원동력이라는것은 70여년에 걸치는 공화국의 력사가 더욱 잘 말해주고있다. 최근 10년사이에만도 공화국인민들은 앞서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게 된다는 비상한 자각과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결사의 투쟁을 벌려 국가핵무력원형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민족민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보를 굳건히 마련하였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는것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

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도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조국통일은 그자체가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우리 민족이 남남 못지 않다는 자부심,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이며 민족의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의지를 지닐 때 조국통일을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이룩할수 있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이 나라의 통일과 민족번영을 담보하는 정신적원동력이라면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의 통일

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상독소이다.

우리 나라를 들로 갈라놓고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에게 환심을 가지고 기대를 걸면서 그에 굶지거면 으러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 복잡성과 난관을 조성하고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략물로 만들게 된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이 동족에 대해서는 《주적》으로 적대시하고 침략적인 외세에 대해서는 《형평》으로, 《동맹자》로 떠벌이며 외세의존, 외세와의 공조에 매달리는것은 북남관계에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어 또다시 전쟁의 재앙을 불러오는 매국배족행위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온 겨레가 투동사대매국노들인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이 제 나라의 강한 자존심을 지키고 사대매국적인 행위를 짓부서버리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때 이 경우에는 반드시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이 일떠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통일을 불러 태권도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한 애국지사 (6)

2000년 10월 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돛 경축행사가 성황리에 준비되고 있었다.

최흥희총재는 공화국을 또 다시 방문하여 여러 경축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마침내 뜻깊은 경축행사의 날이 왔다.

이날 김일성광장에서는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환영곡이 울리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는 가운데 주석단에 나오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석단성원들속에서 최흥희총재를 알아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손으로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면길에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정말 해외에서 수고가 많다고 은정의 말씀을 하시었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인 최흥희선생이 우리 당창건 55돛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번 기회에 시간을 내어 선생을 한번 만나주라고 한다고 하시었다.

10월 20일.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 시간에 걸쳐 그를 만나주시고 언비어수령님께서 안겨주시던 각별한 신임과 사랑을 그대로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생이 조국에 올 때마다 오늘처럼

개별적으로 조용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는데 일정이 긴장하다보니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다고,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흥희선생이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보급하느라고 로고가 크다고 하시면서 그가 고행이지만 왕성한 날과 패기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과 남의 태권도를 하나로 만드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사실 남조선군사파쇼 《정전》은 《세계태권도련맹》을 조작한 후 정통태권도의 분열과 말살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세계태권도련맹》이 태권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라는 《인정》을 음모적방법으로 얻어낸것은 그 단적인실례였다.

한편 《세계태권도련맹》은 저들이 주관하는 태권도를 올림피종목으로 만들기 위한 작정을 언술하여 강행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태권도라는 명칭의 무술이 국제적인 공인을 받고 올림피경기종목으로 되자면 마땅히 그것을 만든 사람이 총재로 있는 국제태권도련맹의 태권도가 선택되어야 하였다.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두 태권도련맹의 통합을 제기했다.

참다운 태권도인들도 태권도의 순수롭고 통일적인 발



전을 위해, 두 련맹의 통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우리 민족무술이며 민족의 자랑인 태권도의 통일적이며 순수로운 발전을 위해, 조국통일의 앞날을 위해서 두 련맹의 통합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실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깊이 파악하고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흥희선생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르기까지 해결방도를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최흥희선생이 북남의 태권도를 하나로 만드는 문제도 생각하고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일군을 부르시어 태권도의 통합과 그 발전을 위한 최흥희선생의 사업을 잘 도와줄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흥희총재를 위하여 뜻깊은

본사기자

## 사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북 각계층의 투쟁 1980년 광주에서의 대중적인 봉기

광주인민봉기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까지 10일만에 걸쳐 벌어졌다.

1980년 3월부터 남조선전역에 료년의 불길처럼 타빈진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파쇼민주투쟁은 전두환도당이 《유신》파쇼독재를 지행하기 위하여 5월 17일 남조선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것을 계기로 하여 광주땅에서 반 《정부》적인 대중적투쟁인민봉기로 전환되었다.

인민봉기는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비상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여 시위투쟁에 떨쳐나선 광주시대 청년학생들은 군사파쇼도당이 가장 악질적인 공청부대(학파산부대)를 내몰아 류형적인 탄압을 가하자 이에 격분하여 억압자들에게 폭력으로 항거하여나섰다.

청년학생들의 폭동적진출은 삼시에 온 광주땅을 휩쓸었으며 여기에는 시내의 모든 인민들과 시주변의 로동자, 농민들까지 합쳐서 그 수는 5월 21일에 무려 30여만명에 이르렀다. 봉기군중들은 도청, 시청을 비롯한 통치기관들을 들이쳐 그를 장악하였고 농들의 무기를 습격하고 수천정의 무기를 탈취하였을뿐 아니라 《계엄군》의 많은 탱크와 차량들까지 빼앗아 타고 용감히 싸움으로써 5월 21일에는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시를 완전히 자기들의 통제 밑에 넣었다. 항쟁의 불길은

도내 대부분의 지역과 전라북도까지 파급되었으며 목포, 라주, 화순, 영광, 담양을 비롯한 17개 시, 군이 봉기군중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이에 당황한 전두환일당은 즉속된 남조선군 2개 사단을 광주인민봉기를 진압하는데 동원하는것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지휘권을 군부에 넘겨준다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어 미국대통령 안전담당특별보좌관 브레진스키는 《무죄주먹》이 광주인민봉기를 진압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미군까지도 폭동진압에 동원시킬것이라고 하였다.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주범은 바로 외세인 미국이며 반미자주화가 없이 남조선인민들이 바라하는 남조선통일도 이를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광주시와 그 주변의 각계각층 주민들 100여만명이 참가한 영웅적광주인민봉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히 열고 광주인민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할데 대한 작전계획을 작성하였으며 회의결정에 따라 미국방부는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에 전격적으로 《무죄주먹》이 광주인민봉기를 진압하는데 동원하는것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지휘권을 군부에 넘겨준다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어 미국대통령 안전담당특별보좌관 브레진스키는 《무죄주먹》이 광주인민봉기를 진압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미군까지도 폭동진압에 동원시킬것이라고 하였다.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주범은 바로 외세인 미국이며 반미자주화가 없이 남조선인민들이 바라하는 남조선통일도 이를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광주시와 그 주변의 각계각층 주민들 100여만명이 참가한 영웅적광주인민봉기

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 억압자들이 강요하는 낡은 《유신》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정치를 실시하기 위한 가장 높은 형태의 반파쇼민주투쟁이였으며 전체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방인민들의 근대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가장 크고 격렬한 대중적봉기였다. 봉기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 식민주의적외세와 그 앞잡이 군사파쇼도당의 통치지반을 크게 뒤흔들어놓았고 농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광주인민봉기는 미국의 책동과 군사파쇼분자들의 살인행동에 의하여 비록 실패하였으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사에도 하나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었다.

본사기자 전영민



본사기자 전영민